

[2012년 9월 22일 지방직 7급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 원유철

1. 정답. ② **[인물사]** 제시된 사료는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이다. // ① 주로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참여하였다. ③ 김규식. 한반도 문제 UN이관(1947.9) 이후 중도파들이 다시 모여 통합운동을 전개하고자 만든 단체이다. ④ 김구는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 정답. ④ **[시대사-무신집권기]** 제시된 사료는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이다. 무신집권기의 특징을 묻고 있다. // ① 원간섭기 ② 성리학 전래(원간섭기) 이후 ③ 신라 하대

3. 정답. ④ **[선사-청동기]** 청동기 시대에는 여전히 석기 농기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청동제 농기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정답. ③ **[고대-왕대사]** 제시된 사료는 <광개토대왕릉비문>이다. 5c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묻고 있다. // ① 5c 장수왕 ② 4c 소수림왕 ④ 5c 장수왕

5. 정답. ① **[일제-시대사]** ‘몸빼’는 노동력 동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에 일제가 만들어 보급한 것이다. 처음에는 옷 특성상 반발이 심했으나, 결국 보급되어 우리네 한 복장으로 자리 잡았다. 1937년 이후의 특징을 묻고 있다. ① 보국대는 중일전쟁(1937) 이후 일제가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신미증식계획이 추진되었었다. // ② 1910년대 ③ 1920년대 ④ 1910년대 ([《2012년 한국사 기출 445제》출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6. 정답. ③ **[조선 사상사-실학]** 제시된 사료는 정약용의 여전제 내용이다. 여전제는 토지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토지 국유 하에 공동노동과 공동분배를 주장하였다. ② 이를 기반으로 병농일치의 군역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토지개혁의 보통은 병농일치의 군제개혁을 수반한다. 동양 중세의 이상적인 방향이다),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해나가하고자 하였다. ④ 여전제의 보급을 위해서 농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위도식하는 양반들의 직업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① 정약용의 여전제는 토지 국유를 전제하는 것으로, 토지 사유에 입각한 균전제, 한전제 등에 비판적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토지 분급제도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토지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다. // ③ 정전제는 농민적 토지 분배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고, 여전제는 다소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개혁안으로 공동소유와 공동노동, 공동분배에 입각한 토지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개혁안(여전론)이 이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정전제를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7. 정답. ② **[개항기 사상사-동도서기]** 임오군란 이후 윤선학이 제시한 개화상소이다. 동도서기론의 개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상소문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602](#)) // ① 척사운동 ③ 18c 인물성 이론(異論)은 19c 척사운동으로 이어졌다. ④ 급진개화파(변법개화를 주장; 서양체제로의 개편을 주장)

8. 정답. ④ **[고려-왕대사]** 제시된 사료는 태조대 시행된 역분전에 관한 내용이다. ④ 태조는

지방의 유력 호족들과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맺어 지방을 통제하고 자신에 귀의하지 않는 주변 호족세력[지방세력]들을 통제해 가고자 하였다. 이때 왕건과 연결된 대표적인 호족세력이 정주 유씨(柳氏; 제1비), 나주 오씨(제2비), 충주 유씨(劉氏; 제3비), 황보씨(제4비) 등이고, 그 외 신라 왕실과도 혼인관계를 맺어 정통성을 획득하려고도 했다. // ① 정종(3대왕) ② 광종 ③ 태조대는 서경을 중시하여 분사정책을 실시하고 영토를 청천강까지 확장하였다.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 선까지 이른 것은 성종대 서희의 외교담판에 의해서였다.

9. 정답. ③ **[조선-토지제도]**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③ 관수관급제가 시행되면서 관리들의 직접 수조가 폐지되고 관이 직접 수조하여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가의 수조대행을 통해 관리들의 농민지배력을 약화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다(국가의 대민 통제력 강화). // ① 전시과제도 ② 수조권 제도의 소멸은 (라)직전법 폐지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④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 갔다. 즉 관리들의 토지소유 욕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작농이 늘어났다.

10. 정답. ① **[근대 사학사-박은식]** 박은식에 대해 묻고 있다. // ② 정인보 ③ 신채호 ④ 안정복. 정통론적 역사인식은 성리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것으로 실학적 역사인식 단계에 이르면서 대체로 해소되었다. 안정복은 여전히 정통론적 역사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11. 정답. ② **[고대 경제사-신라 민정문서]** 3년마다 지방 촌주에 의해 작성되었다.

※ 수취제도 : 민정문서¹⁾ 내용분석(08국7,09지9,09국7)

1.작성지역	· 서원경(현 청주) 부근의 4개 촌락 (09지9/10회,12-중) · 촌락은 자연촌으로 본다(행정촌 견해도 있음).(09지9)				
2.작성주체 (작성자)	· 촌주 : 4개 촌락에 한명만 존재(매 촌락마다 X) · 촌주의 지위 : 그 지역 유지(지방관X, 중앙에서 파견X)(09국7/4-3급) → 간접지배 ※ 작성연대 : 755년(경덕왕14), 815년(헌덕왕7), 875년(헌강왕1) 추정				
3.작성방법	· 3년마다 통계(4-3급) - 매년의 역·조세수취를 위한 기초 마련 · 증감까지 파악(변동상황 기록)				
4.작성대상 (과세대상)	① 호(戶; 烟) 파악 - 9등호제(08지7) → 인정 다과(多寡) 기준(≠토지 기준X)(09지9,10지7/4-3급) - 3년 이내 전입한 호 기록 ② 인구 파악(口: 남녀) : 인정 6등급 → 남녀별, 연령별 구분(10국7, 10지7) ⇨ 노동력 수취를 위한 기준 마련(4-3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戶(烟)</td><td>상상연(上上烟) ~ 하하연(下下烟)</td></tr> <tr> <td>인구</td><td>소(여)자 - 추(여)자 - 조(여)자 - 정(녀) - 제공/제모 - 노공/노모(60세 이상)</td></tr> </table> ③ 토지 파악 ※ 고려의 호적과 비교 : 고려의 호적과 달리 호구(戶口)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파악. → 고려 이후는 양인(토지대장, 20년마다 작성)이 있어 토지는 별도로 기재하였다.	戶(烟)	상상연(上上烟) ~ 하하연(下下烟)	인구	소(여)자 - 추(여)자 - 조(여)자 - 정(녀) - 제공/제모 - 노공/노모(60세 이상)
戶(烟)	상상연(上上烟) ~ 하하연(下下烟)				
인구	소(여)자 - 추(여)자 - 조(여)자 - 정(녀) - 제공/제모 - 노공/노모(60세 이상)				

1) ※ 신라장적(민정문서; 촌락문서; 정창원문서) : 1933년 일본에서 발견. 일본에 현존.

※ 작성내용	토지	❶ 연수유답(08국7) : 연(烟: 농민)이 받은 토지. 가장 비중이 큼(전체의 96%)(09국7) → 성덕왕대 “정전”으로 추정 / 고려대 “민전”과 같은 성격 ❷ 촌주위답 : 촌주가 받은 토지 → “관료전”처럼 수조지로 추정(09국7) ❸ 내시령답 : 내시령이 받은 토지(수조지 추정(09국7)) ❹ 관모전답 ❺ 마전(08국7) : 마(麻: 삼베)를 심은 토지, 공동경작지
	노동력	· 여자의 노동력도 파악 (여자도 노동력의 대상; 고대의 특징) · 남자의 인구수가 줄고 있다 (농촌의 위기) · 노비의 수가 적다(약 5%) (08지9) → 남북국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다! → 한편, 왕경이 아닌, 지방에까지 노비제도가 존재함을 보여주기도 함
	우·마 (08국7)	· 우·마의 수가 상당히 많다
	토산물 (유실수)	· 유실수 수도 파악 · 뽕 (→양잠을 보여줌), 호두, 잣 등
※ 의미	· 작성목적 : 고대 수취체제와 관련된 문서 → 조용조(조세) 수취를 위해 작성한 문서 (09지9) · 의의 : 국가의 율령체계가 지방에까지 정연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줌(당시의 율령정치가 한때는 정연했음을 보여줌). → 국가의 지배력이 지방에까지 전달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	

12. 정답. ① **[개항기-대원군 시기]** 제시된 사료는 경복궁 중건 당시 붙여진 타령이다. 대원군 시기의 일을 묻고 있다. // ② 17c 후반 숙종 ③ 조선 태조 ④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1894)

13. 정답. ① **[고려시대-신분제도]** 고려시대 신분제도를 묻고 있다. // ① 중류층인 남반은 궁중 내료직(內僚職)으로 궁궐에서 근무를 담당한 관리군이였다. 중앙관청의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관장한 이들은 서리(아전)들이다.

14. 정답. ② **[조선후기-임술민란]** 《고환당수초》는 개항기 개화파 인사인 강위(姜瑋;1820-84)의 시문집이다. 강위가 임술민란 당시 진주민란을 목격하고 쓴 글이다. 임술민란은 삼정문란을 배경으로 일어난 난으로, 삼정(전정, 군정, 환정) 문란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을 뿐, 토지분배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② 토지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은 개항기 농민운동 단계에서이다. 갑오정권기 동학농민군은 ‘토지 평균분작’을 주장하였고, 대한제국기 활빈당은 ‘균전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15. 정답. ② **[고대-시대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른 시기구분법이다. (가) 상대 (나) 중대 (다) 하대. ㄱ.선덕여왕(상대) ㄴ.신문왕(중대) // ㄷ.선덕여왕 ㄹ.성덕왕 아들인 경덕왕대 시작하여 혜공왕대 완성(중대)

16. 정답. ③ **[개항기-정미의병/순서문제]** 군대 해산 이후 정미의병을 설명하고 있다. (가) 시위대 해산과정 (나) 서울진공작전을 설명하는 사료이다. // ③ 헤이그 밀사 사건(1907) → 고

종 강제 퇴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군대 강제해산 순서이다.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면 협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다.

17. 정답. ① **[개항기-국채보상운동]** 제시된 사료는 국채보상운동(1907) 사료이다. ① 화폐정리사업과 시정개선 사업의 명목으로 일제가 들여온 차관이 1300여만 환에 이르면서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 ② 간도협약(1909) ③ 고문정치(제1차 한일협약; 1904.8)를 통해 상당수의 고문이 한국에 들어왔다. 고문정치 역시 차관증가의 배경이 되기는 하나, 직접적인 배경은 시정개선 사업과 화폐정리사업을 통해서이다. 일제는 한국을 근대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차관을 급격하게 들여왔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일 채무를 증가시켜 일본에 예속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다. 영국이 이집트를 복속시키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④ 1910년대

18. 정답. ④ **[근현대 통사-일제 토지조사사업 vs 해방 후 토지개혁]** (가) 일제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나) 남한의 농지개혁(1949년 제정→1950년 개정법 시행). ① 토지조사[양전]을 하면 과세지는 확대되고 지세는 증가한다. ② 농지개혁은 제한적으로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농지(논, 밭)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임야, 과수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국유지가 늘어나면서 총독부가 대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대거 동척에 불하하면서 동척도 대지주가 되었다. 동척은 척식(拓植; 개척과 이식)을 주도하는 회사로 이 토지를 일본인에게 싸게 불하 해 일본 이민을 증가시켰다. // ④ 신한공사는 미군정기(1945~8) 일제 적산처리를 위해 만든 기관이다.

19. 정답. ④ **[수취체제 통사-전세 일반론 & 시대별 특징]** ④ 영정법은 1결당 4두로 고정시킨 전세제도이다.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한 것은 대동법이다. 기존의 공납을 전세로 대체하면서 1결당 12두(16두→12두)를 부과하였다. // ① 통상적인 전세 수취량은 1/10세로 파악한다(전세 일반론). ② 전세 수취의 기준으로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고려시대에는 3등급, 조선(세종이후)에서는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③ 세종대 공법을 설명한다.

20. 정답. ④ **[통사-민란의 순서]** ㄴ. 원종과 애노의 난(신라 하대) →ㄱ. 신라 부흥운동(최씨 무신정권기) →ㄷ. 임꺽정의 난(16c 명종) →ㄷ. 홍경래 난(1811)